‘오월 정신’ 무대에서 살아나다

전남도립국악단, 집체극 ‘봄날’
토다밴드 등 노래극 ‘오월’ 공연
ACC ‘시간을 칠하는 사람’ 도

전남도립국악단의 ‘봄날’ 장면 〈전남문화재단 제공〉

5·18 주간을 맞아 광주를 비롯한 전남 전역에서 추모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광주 5월을 모티브로 한 공연이 관객들을 만난다. 현대사의 아픈 역사인 5·18은 여전히 많은 콘텐츠로 제작돼 관객들에게 그날의 진실을 알리고 있다.

먼저 전남문화재단의 기획 공연으로 제작된 집체극 ‘봄날’과 노래극 ‘오월’이 각각 20일(오후 4시), 24일(오후 7시) 남도소리울림터 무대에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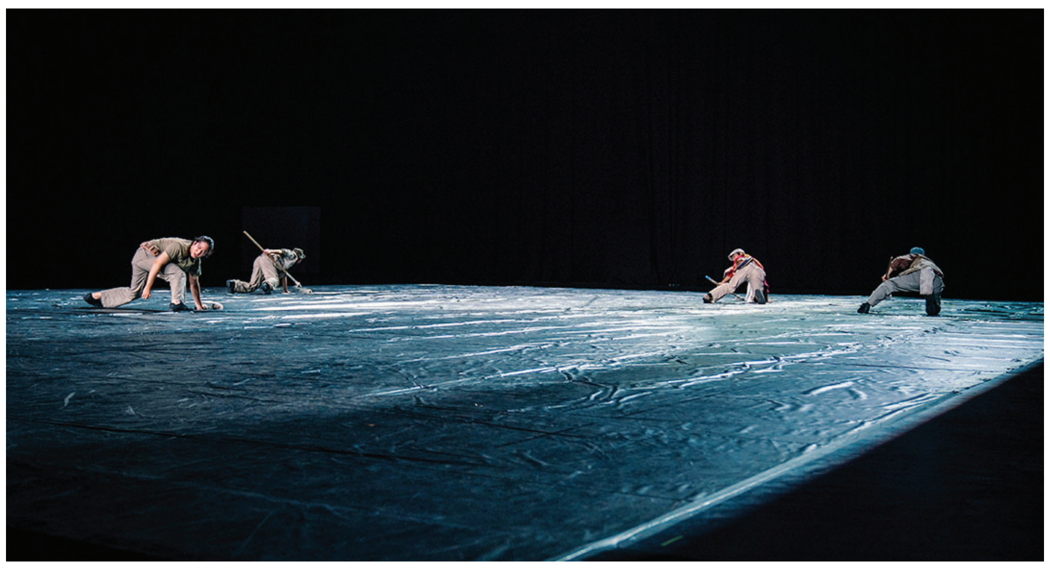
전남도립국악단의 오라토리오 집체극 ‘봄날’은 공연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갈라콘서트 형식으로 선보인다. 주제는 ‘평화와 깍지 손’.

이번 집체극 ‘봄날’은 지난 2020년 11월 초연한 작품으로 광주민주화항쟁의 시작부터 마지막 도청 사수를 위한 시민군의 항쟁까지 전 과정을 압축했다. 합창, 이면가락 판소리, 국악 관현악, 풍물 등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서사극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를 35분 분량으로 발췌해 무대에 올린다. 또한 이번 무대에서는 집체극에 쓰인 무용작품을 단독 무용극으로 새롭게 재창작한 ‘봄날’도 함께 선보인다.

이밖에 ‘바위섬’, ‘직녀에게’로 알려진 가수 김원중과 전남도립국악단 기악부의 협연 무대도 마련돼 있다.

오는 24일(오후 7시)에는 노래극 ‘오월’이 관객들을 찾아간다. 이번 작품은 민중화가 홍성담의 연작판화 ‘5·18-새벽’을 모티브로 한다. 첫 번째 프로그램 샌드아트 ‘아무도 몰라’는 홍성담의 목판화 ‘암매장’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됐다. 홍성담의 시에 노래곡으로 창작한 샌드 애니메이션 영상 작품으로 화가 주홍이 참여했다.

두 번째 프로그램 ‘운동화비행기’ 애니메이션은 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당한 소년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홍성담의 그림책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며, 세 번째 프로그램은 토다밴드가 홍성담 연작판화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한 곡을 연주한다.


ACC의 ‘시간을 칠하는 사람’ 장면 〈ACC 제공〉

마지막으로 광주 민주화항쟁의 최후 항쟁지였던 옛전남도청과 그 건물에 얽힌 칠장이의 이야기를 그린 ‘시간을 칠하는 사람’이 21일까지 공연된다.(19일 오후7시30분, 20일 오후 2시·오후 5시, 21일 오후2시)

ACC가 창제작한 이번 작품은 옛전남도청을 하얗게 칠하던 노인 김영식의 기억을 따라 펼쳐진다. 흰색으로 지워야하는 아버지와 형형색색으로 그려야만 했던 아들의 시간은 현대사의 비극에 던져진 개인들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극단 봄의 거리 공연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우리동네 프린지 in 북구’ 거리 퍼레이드

‘걸리버여행’ ‘모두의 삼바’ 등…21일 중외공원

광주거리예술축제인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우리동네 프린지’로 올해 첫 막을 올린다.

‘광주 시민의 날’인 오는 21일 오후 4시 40분 중외공원이며, 주제는 ‘우리동네 프린지 in 북구’.

분산형 거리예술 축제로 진행되는 올해 프린지는 광주 5개 구역 마을 축제와 연계해 펼쳐진다. 올해는 5월부터 12월까지 총 5회가 예정돼 있다.

올해 예술감독은 거리예술축제 전문가인 임수택씨가 선정됐다. 임 감독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ACC 광주인터내셔널 예술감독, 2020년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예술감독 등 다수의 축제 총감독을 역임했다.

임 감독은 “올해 프린지는 코로나 종식 후 사회적 화두를 예술적으로 다루는 거리예술축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 초점을 뒀다”며 “특히 광장에 비중을 두고 국내는 물론 해외 우수 레퍼토리를 선보이는 데도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제1회 ‘우리동네 프린지 in 북구’는 거리 퍼레이드 공연으로 분위기를 띄운다.

오후 4시 40분에 극단 봄의 인형극 ‘걸리버여행’이 시민들을 만난다. 영국 유명 풍자소설 ‘걸리버 여행기’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4m가 넘는 거대 인형 걸리버가 인상적이다. 그러나 무서운 거인 걸리버가 아닌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 즐기는 따뜻한 걸리버에 초점을 맞췄다.

2003년 창단한 극단 봄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작품을 만들어오고 있으며 실내극, 대형 인형거리극 등을 을 통해 인형극의 저변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어지는 무대는 라퍼커션의 이동식 타악 퍼포먼스인 ‘모두의 삼바’. ‘라퍼커션’은 태양처럼 뜨겁게 삼바를 연주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한국 대표 브라질 음악 예술단체다. 이번 공연에는 Samba, Afro 등 흥겨운 브라질 음악의 매력을 전할 예정이다. 2008년 창단 이후 지금까지 공연과 음반, 콘서트, 파티, 워크숍을 통해 삼바의 흥과 정서를 전하고 있다.

한편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관계자는 “오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ACC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라며 “코로나 이후에 개최되는 만큼 시민들과 함께하는 흥겨운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문화향연-박물관 속 바이올린’

20일 퓨전밴드 ‘두 번째달’

다국적 7인조 에스닉 퓨전밴드인 두번째달.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박물관의 대표 유물과 전시를 관람하며 바이올린 연주를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다.

국립광주박물관(광장 이애령)은 20일(오후 3시) ‘박물관 문화향연-박물관 속 바이올린’을 선보인다.

특히 박물관에서 제14회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전시가 열리고 있어 이번 문화향연은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연에는 다국적 7인조 에스닉 퓨전 밴드인 두 번째달이 참여한다. 판소리와 월드뮤직을 결합한 앨범 ‘춘향가’를 발표하며 활동을 펼쳐가고 있는 두 번째달은 이번 공연에서 ‘구르미그린달빛’, ‘궁’, ‘푸른바다의 전설’ 드라마 OST 등 친근한 선율의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두번째달 관계자는 “이번 자리는 서양음악을 통해 전통을 노래해왔던 두번째달의 음악과도 무척 잘 어울릴 것 같은 예감이 든다”며 “전통문화예술을 일상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게 노력하시는 광주박물관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무료 공연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현장 선착순 접수.

한편 광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따뜻한 햇살과 푸르름이 가득한 야외정원에서 진행된다”며 “박물관 대표 유물과 비엔날레 전시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역사에 헌신한 의인 가족 4대’ 출판기념회

전용호 작가 집필…20일 DJ센터

‘동학에서 5월항쟁까지-역사에 헌신한 의인 가족 4대’ 출판 기념회가 오는 20일 오후 4시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별관 2층(델리하우스)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출판기념회는 이홍길 명예교수,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이명한 소설가,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등 사회문화계 인사들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책의 저자는 전용호 작가로, 그는 전남대 재학시절 들불야학 강학으로 활동했으며 광주전남소설가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책은 1894년 조선 수군 동첨절제사(종4품) 신분으로 함평 동학군을 이끌고 농민전쟁에 참가했다 체포돼 처형된 상삼 이태형 장군 등 함평의 이씨 집안 4대에 걸친 4인의 기록을 담고 있다.

이번 책은 이태형 장군 외에도 장군을 밀고한 동학군 토벌군관을 처단한 아들 이충범 선생, 농민들에게 농지를 무료로 나누어주고 제헌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손자 이성우 의원, 5월항쟁 등 민주화통일운동에 나선 증손자 이일행 선생의 4대에 걸친 이야기다.

전 작가는 이번 책을 자료와 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썼다. 물론 이태형 장군과 이충범 어르신은 100년을 뛰어넘는 세대의 분들이라 증언을 해줄 사람이 없었고 자료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일정 부분은 소설적 상상력을 동원해 집필할 수밖에 없었다.

이성우 의원과 이일행 선생은 그동안 두 분과 인연을 맺었던 박석무, 이홍길, 전홍준, 박시영 등 지인들과 이연행, 이현행, 이건준 등 집안 가족들의 증언을 토대로 집필됐다.

출판기념회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민영돈 조선대 총장의 축사, 박맹수 전 원광대 총장의 ‘함평동학농민전쟁’ 강연, 박석무 이사장의 ‘광주 5·18과 이일행 선생에 대한 회고’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